

‘불수능, 고교교육과정 위반’ 소송... 올 물수능 되나

시민단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판결따라 올 고난도문항 출제 가능
‘물수능’, 대입 변별력 약화 논란도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6n인 삼각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g(x) = \frac{1}{2 + \sin(f(x))}$ 이 $x = \alpha$ 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고,
 $\alpha \geq 0$ 인 모든 α 를 작은 수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alpha_1,$
 $\alpha_2, \alpha_3, \alpha_4, \alpha_5, \dots$ 라 할 때, $g(x)$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lpha_1 = 0$ 이고 $g(\alpha_1) = \frac{2}{3}$ 이다.
(나) $\frac{1}{g(\alpha_2)} = \frac{1}{g(\alpha_3)} + \frac{1}{2}$

$g(-\frac{1}{2}) = a\pi$ 라 할 때, a^2 의 값을 구하시오.
(단, $0 < f(0) < \frac{\pi}{2}$) [4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 문항.

어 문항별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학가형 30개 문항 중 7개, 수학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국어 45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각각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여부는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다.

수학의 경우 이른바 ‘킬러문항(최상위권 소수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꼽힌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31일 ‘2019학년도 수능 문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수학포기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 가형 30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고 합성함수를 미분하거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봤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수식 중 일부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교육과정과도 무관해 고

교과정 성취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행정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42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독서와 문법에서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문제’로 보고 교육과정에 근거했다고 제시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의 논리 관련 과목의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고전 논리의 명제의 대당 관계나 양상 논리에 나오는 가능세계 존재론을 이해하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돼 학생과 학부모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하겠다”며 “더불어 수능과 학력평가, 모의평가, 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법원이 따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규제 대상에는 그러나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는 수험생들의 학습량은 물론, 대학의 신입생 선발 변별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보다는 대개 일정한 수준의 수능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난도 문항이 크게 줄어 ‘물수능(쉽게 출제된 수능)’이 될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의 경우 이번처럼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기로 한만큼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보다는 물수능이나 불수능으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스노보드 2관왕을 달성한 홍승영 일병(왼쪽에서 네번째)이 메달을 목에 걸고 소청도 해병들과 우정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최북단서 ‘스노보드 국대’ 꿈꾸는 해병대원

홍승영 일병, 국내 대회서 2관왕

서해 최북단을 지키고 있는 해병대 6여단의 해병대원이 지난달 25일 대한스키협회 전국종별스키선수권대회에서 스노보드 2관왕에 올른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해병대는 6일 백령도서군의 소청도에서 K-3 기관총 사수로 복무하고 있는 홍승영 일병(20)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자기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홍 일병의 사연을 소개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의 홍 일병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꿈과 희망의 병영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다른 해병들의 귀감이 되

고 있다.

그가 근무하는 소청도는 85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서해의 작은 섬으로 동계 스포츠를 연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홍 일병은 해병대가 추진하고 있는 ‘The SSEN(더센) 해병프로젝트’와 ‘참해병 혁신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렀다. 그는 ‘꿈과 희망이 있는 병영문화’를 강찬의지로 실현해 보인 것이다.

입대 후 1년간 꾸준한 노력한 홍 일병은 지난달 대한스키협회가 주관하는 전국종별스키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에도 전례 스노보드 평행회전 1위와 평행대회전 1위를 차지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일궈냈다. /문형철 기자 captain@

서울시교육청

올 첫 검정고시 원서접수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19학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원서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현장접수하거나 ‘나이스대국민서비스’(homedu.sen.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21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외국학력 인정자는 현장접수만

할 수 있다.

현장 원서접수처에서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응시자가 개별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은 오는 4월 13일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되고, 합격 여부는 5월 9일 10시 이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나 ARS(060-700-19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내 ‘행정정보→시험안내→검정고시 안내→검정고시 공고’에서 참고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광운대 유지상 총장

美 퍼듀대 총동창회 공로상 수상

광운대학교는 유지상 총장이 미국 퍼듀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윤광준)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총장은 퍼듀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슈피리어에서 열린 ‘퍼듀대 총동창회 2019학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서 진행됐다.

유 총장은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능력을 펼치는 동문들도 많은데 이렇게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광운대를 이끄는 총장으로서 광운대는 물론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테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유지상 광운대 총장. /광운대학교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좋은책신사고 참고서 ‘강남인강’서 만난다

교육 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는 우공비, 오감도 등 중·고교 참고서 56종이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강의 교재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강남인강은 강남구가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 유일의 중·고교 대상 내신 전문 온라인 교육 사이트다. 지금까지 약 223만명이 수강했다.

내신은 물론 수능 대비 기본서로 알려진 중·고등 우공비 시리즈의 경우 올해는 고등 통합과학, 물리학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과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등 수학, 사회, 과학 2학년 교재 강의가 추가 제공된다. /한용수 기자

‘2·8 독립선언’ 100주년, 韓·日서 기념식

피우진 국가보훈처장日記기념식 참석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가 일본 동경과 서울에서 동시에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일본 동경 재일본한국 YMCA와 서울 YMCA에서 동시에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2·8독립선언은 일본 동경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해 1919년 2월 8일 동경소재 재일 조선기독교 청년회관 강당에서 유학생 600여 명이 독립선언서 낭독해, 현장에서 17명 체포된 민족운동의 시발점이다. 그해 1월 ‘2·8독립선언서’가 송계백에 의해 서울의 정노식에게 전달되면서 3·1운동 발발에 도화선이 됐다.

2·8독립선언 역사적 의의 높이기 위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동경 현지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병구 차장은 국내 기념

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피 처장은 기념식에서 2·8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애국충정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은 평화를 향한 2·8독립선언의 의지를 살아 숨쉬는 평화의 정신으로 만들어 가자는 내용을 전달한다.

일본 방문 기간 중 피 처장은 일본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성규 애국지사 위문과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기념식 하루 전인 7일 오애국지사를 위문하는 자리에서 피 처장은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행사 초청장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한편, 피 처장은 기념식 당일인 8일에는 이봉창 의사가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궁성 인근 사쿠라다문(櫻田門) 등 선열들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edm유학센터

가수 로이킴 전속모델로 선정 어학연수 장학금 지원 이벤트

유학전문기업 edm유학센터는 신규 전속 모델로 가수 로이킴(사진)을 선정, 이를 기념해 어학연수 장학금과 왕복항공권을 증정하는 ‘edm X 로이킴 어학연수 장학금 지원 이벤트’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 마감일까지 어학연수 상담을 위해 edm유학센터 지사 방문 시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전원 응모된다. 어학연수 왕복항공권 추천 이벤트와 함께 어학연수 과정 등록 시, 과격 학비 할인과 장학금 등이 제공되는 ‘어학연수 시크릿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 상담과 이벤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dm유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